천개의 카페엔 천개의 문화가 있다 ⑧ | ‘ 마이 시크릿 메이트 카페 더 샤리마 ’

호기심 자극하는 퍼즐 카페

퍼즐카페 ‘ 마이시크릿메이트카페더샤리마 ’의외관.

요즘 어느 도시, 어느 골목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상점 중 하나가 커피점이다. 그러다 보니 웬만해서는 시선을 사로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런데 임대료 비싸기로 유명한 신촌 도심 한복판에 크지도 화려하지도않은카페하나가입소문을타고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신촌역3번출구에서이화여대방면으로걷다가민들레영토뒷골목으로들어가면‘ 마이시크릿메이트카페더샤리마 ’라는이름의커피숍이 눈에 들어온다. ‘ 퍼즐 ’이라는 차별화된콘셉트로승부를건이색카페다. 카페를찾은손님이면누구나비치된150조각의퍼즐을자유롭게맞춰볼수있다. 입장료가없는대신1인당 1개의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카페에서는 5000원부터 수만원대까지의다양한퍼즐도판매도한다.

카페는이은사(30)· 은교(27) 자매가 합심해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사장인 이은사씨는 “ 비싼 임대료와 과도한인테리어로제살깎기식의 경영을하기보다는감성소비시대에 맞춘이색적인체험으로마니아층을 넓혀가고자한다 ”고밝혔다.

카페는 자매가 공들여 만든 퍼즐 액자들로 장식돼있다. 샤갈의 대표작을 모사한 작품부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작품들까지알록달록다양한 퍼즐 액자들은 인테리어 효과를주기에충분하다.

150조각퍼즐에취미를들인사람들은 1000조각 이상의 대형 퍼즐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형 퍼즐은만드는데수일에서수주일이걸리므로 집에서는 보관이 어려운 것이사실이다. 그래서이카페한편에는이런손님들을위해조립중인대형 퍼즐을 보관해주는 공간도 마련해두고한달까지는무료로퍼즐을 보관해준다.

자칭 ‘ 퍼즐 마니아 ’라는 손님 임하늬(25· 서울마포구)씨는 “ 예전에는장롱위나 침대아래에숨겨두곤했지만, 기르던 고양이가 망가뜨리기일쑤였다 ”며“ 그런데이곳에서는 한달까지는무료보관도해줘서시간날때마다틈틈이찾아퍼즐을맞출수있어서정말좋다 ”고전했다.

“ 와아! 박영식! 네가당첨이다! 아부러워~. ”

왁자지껄한소리가나는테이블로 가보니 4명의 대학생이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1만6000원짜리 1000조각 퍼즐을 함께 구매하고2시간여의시간동안머리를맞대고함께조립해퍼즐을완성했다.

카페에서판매중인다양한종류의퍼즐들.

복불복내기에서1등을해퍼즐을 집으로가져가는 행운을안게된박영식군은 “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함께퍼즐도맞추면서 즐거운시간을 보낸 것으로도 좋았는데 예쁜 퍼즐까지 갖게 되어 좋다 ”며 “ 액자에넣어함께온여자친구에게선물할생각 ”이라며웃었다.

비슷한 카페와 지루한 일상에 지쳤다면오늘은남녀구분없이즐길 수있는놀이인퍼즐로행복한시간을보낼수있는퍼즐카페를찾아보는것은어떨까.

퍼즐을맞추고있는손님.

문의070 - 4062 - 2788

글=김남희기자
knh08@womennews.co.kr
사진=김홍지객원기자

제10회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대상에 김명숙작‘ 염원 ’

여성가족부장관상수상작, 김명숙작 ‘ 염원 ’

제10회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의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의 영예는 김명숙 작가의 한국화 ‘ 염원 ’이 안았다. 박병구 심사위원장은 “ 한국전통의십장생을고서의고전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탄탄하게 재구성한 구축적 화면 구성, 십장생의 장식적 변형과 단순화, 묵의 강렬한효과를높이평가했다 ”고 심사평을밝혔다.

제16회 여성주간을 기념하는의미도가졌던이번대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실험정신보다는성실한심미적묘사와감성이 강조된 서정적 표현양식의작품들이중심을이루었다. 대회는한국현대여성미술가회와 대구미술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운영위원회와 ㈔일하는 여성연합이주관했다.

◆본선수상작가

▲대구광역시장상: 정선욱(꿈 ’-서양화), 장경미(봄이 오는 소리 ’-한국화), 김태조(송성오월한 ’-문인화), 전미미(오미자축제 ’-디자인) ▲경상북도 지사상: 유병애(지금처럼 ’-서양화), 허선아(무제 ’-조소) ▲대구미술협회장상: 최옥란(‘ 단풍 ’-서양화), 정미분(기다림 II ’-한국화), 박나현(묵죽 ’-문인화) ▲일하는 여성연합상: 박명순(청하 ’-서양화), 최미자(첫눈 ’-한국화), 임태선(묵연 ’-문인화)

김남희기자

소프라노 고미현의 세계 음악 ⑤

야로슬라브올샤주한체코대사가말하는체코음악

동유럽 클래식 음악의 보고

체코는 동유럽 클래식 음악의 보고(寶庫)다. 야로슬라브 올샤(사진) 주한 체코 대사는 “ 1920년대의 한국은 아무래도 클래식음악의저변이넓지않았을텐데, 기록에 따르면 1920~30년대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4명의 체코 음악가들이연주활동을한것으로돼있습니다 ”라는말을전한다. 이4중주 악단은 Hus와 Student라는 두 명만이름이알려져있을뿐자세한 기록은남아있지않다고하지만, 이들이한국에체코의음악을전한최초의 음악가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후 1990년대에 체코 음악가들이공식적으로한국에와서공연하면서체코와한국의음악교류는 급격하게발전돼갔다.

지난해 체코프라하오페라극장 주역가수들이대거내한해서울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에서한국 - 체코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필자는소프라노주역으로참여했는데, 체코음악가들의수준이 상당히높다는인상을받았다. 올해에도체코음악가들이국내에서여러 차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체코 국립극장이 한국에서 9월에 공연할예정이고연극과음악이함께하는독특한형태인야나첵의‘ The Makropulos Case ’를 들려줄 예정이다. 음악이야말로그나라를알리는가장중요한외교라는주한체코 대사의메시지가계속귀에맴돈다.

체코에는 ‘ 프라하의 봄 ’(Prague Spring)으로 불리는 유명한 프라하 국제음악 페스티벌이 있다. 매년 5월 12일부터 6월 초까지 약 3주간 이어지는데, 체코의 국민작곡가라 할스메타나의서거일이기도한개막일엔 스메타나의 ‘ 나의 조국 ’이 연주되며, 폐막때는베토벤의교향곡9번 ‘ 합창 ’이연주되는것이관례로돼있다. 체코출신최고의마에스트로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고베를린필하모닉이연주하는스메타나중에서 ‘ 몰다우 ’는정말최고의연주다.

그리고 체코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People's School of Art라는학교가있다고한다. 학생들은이곳에서음악과미술을매우저렴한비용으로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비싼사교육으로감당해야될부분이지만체코같은유럽국가들은예술교육을위한지원을아끼지않고 있다는점이부럽다. 야로슬라브올샤대사도기타를3년정도배운바 있다. 최근에는무겁고심각한공연뿐만이아니라클래식을잘이해할 수있도록하기위한 ‘ 해설이있는 음악회 ’나 그림 또는 시와 함께하는음악회등도체코에유행하고있다고한다.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는 한국에서지휘자금난새씨의해설이있는 음악회를흥미롭게본적이있다고 한다.“ 영어자막이없어서무슨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몰라 아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인들이 그것을즐기고있다는것이었고이러한현상은시대적인흐름인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는것이다.

야로슬라브올샤대사는“ 프라하에서 1990년대 중반에 ‘ 장보고의 꿈 ’이라는 뮤지컬을 보았어요. 그때부터한국이라는나라에대해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후에 한국 대사로 오게 되어 정말감개가무량하더군요 ”라는말을 남겼다. 역시 음악 같은 문화예술은나라를알리는홍보에아주적격이다. 뛰어난예술실력과유창한 영어로 중무장한 발군의 문화대사들이더많이필요한시대다.

고미현 성악가 · 서울종합예술학교교수